

특허청, 제약바이오 분야 혁신 가속화를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서

- (주)한미약품 현장방문 및 제약바이오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4. 15.(화) 14시, 제약바이오 분야 주요 기업인 한미약품 연구센터(경기도 화성시)를 방문하여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한미약품의 연구개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제약바이오 산업의 핵심인 신약 개발을 포함한 연구개발 동향을 살펴보는 한편,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미약품의 주요 연구개발 현황, 국제적 기술이전 사례 및 신약 파이프라인 전략 등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특허 심사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근 제약바이오 산업은 고령화와 감염병 확산 등 글로벌 보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세계 시장 진출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은 제약바이오 분야의 특허출원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바이오의약 전문심사관을 증원하고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한 바 있다. 아울러, 우선심사 대상 기술에 바이오 분야를 추가 지정하여 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허청 임영희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민 건강을 책임짐과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현장 소통을 통해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과 심사 실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특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화학생명심사국	책임자	과 장	김 용	(042-481-8642)
	약품화학심사과	담당자	사무관	김강필	(042-481-5510)